

## 입을 수 있는 컴퓨터, 새로운 인터넷 퍼포먼스

스티브 만(Steve Mann)

무선통신은 인터넷 중재의 새로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보안의 해답들이 그 동안 숨겨 왔던 중요한 질문들을 밝혀 내는 기술말이다. 'Interrogative Internet Intervention'은 노동자와 (유무형의)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증인' 기능(Witnessential Network)을 한다. 이것은 공격자에게 대항하는 데 적합한 특징을 지닌 영상과 계급주의적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발적인 비디오 포착'과 '자기 격하'는 폭력과 그 무책임한 폭력에 대항하는 방어 of 새로운 형태로 소개된다. 이 글은 지난 20년간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착용 가능한(wearable)' 영상기계의 발명,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에 이르는 다양한 실험의 결과를 말하고자 한다.

### 증인으로서의 컴퓨터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를 보면 단지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때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는 폭력을 방지하기보다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비디오)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거의 어느 나라에서나 목격된다. 범죄의 증거를 담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쓸 때, 평소 부드럽던 점원조차 카운터를 뛰어넘어 카메라를 가진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후,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이 잘 보호된다는 캐나다(UN이 발표한 최고의 인권보호국)조차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범죄 증거를 담기 위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sousveillance, 감독이란 뜻인 'surveillance'의 반대 의미로, 기관에 의한 감독이라기보다 일상에서 보통사람들이 행하는 감독이라는 의미)'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미의 '감독(sousveillance)'은 인터넷 퍼포먼스의 또 다른 형식을 제시한다(이것은 <http://wearcam.org/shootingback.html>에 링크된 영화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카메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들도 '아이탭 디바이스(EyeTap device, 착용 가능한 사이버네틱 개인 영상 시스템)'에 의해 촬영되고, 실시간 비디오로 인터넷(<http://airfraud.com>)에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이 시스템은 부패한 세관 공무원과 항공사 직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무원의 행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마 카메라로는 이러한 사례를 기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시스템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이템 디바이스’가 카메라의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예 몰랐다고 항변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아이템 디바이스란 ‘생방송으로 전달되는 비디오’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퍼포먼스가 있었다(<http://wearcam.org/itti/index.html>, [http://wearcam.org/cyborg\\_and\\_community/cyborg.pdf](http://wearcam.org/cyborg_and_community/cyborg.pdf) 참조). 이 퍼포먼스란 매우 커다란 평면 스크린 텔레비전을 몸에 장착하고(<http://wearcam.org/weartv.htm>을 참조) 웹 브라우저를 그 스크린에 띄우고, 아이템 디바이스로부터 전해지는 신호를 받는 웹 사이트의 영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 빨간 빛이 깜빡이고, ‘녹화(REC)’와 같은 신호등이 깜빡이는 송신 안테나와 ‘생방송’이라는 단어가 스크린에 큰 글씨로 반짝인다. 또한 찍히는 사람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오는 자신의 얼굴을 TV에서 볼 수 있도록 ‘정지’ 기능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가 비디오를 송신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송신용 기구를 몸에 착용한 사람과 이미지를 받아 퍼포먼스나 실험의 대상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 철저히 금지된 어떤 조직은 그 조직 내의 고위관료만이 웹 브라우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휴대 가능한 웹 브라우저로 자신의 사진을 받아 본 고위관료 대부분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카메라의 모습을 띤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여 수많은 퍼포먼스와 실험을 하였다. 지난 20년간 나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에 찍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백 가지의 ‘메이비 카메라(maybecameras, 카메라처럼 보이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증인용 컴퓨터(Witnessential Computer)’의 설계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셔츠의 옷감 속에 재봉되어 감춰진 ‘네트캠(netcam)’과 컴퓨터를 장착한 셔츠 디자인도 있다. 이 셔츠에는 매우 불투명한 합성수지(plexiglass)로 컴퓨터를 숨기고, 셔츠에 새겨진 문구는 무언가를 숨겼다는 사실을 살짝 내비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했다. 착용 가능한 돔 카메라 시스템(dome camera systems)과 여러 유형의 착용 가능한 텔레비전 디스플레이(television displays) 역시 무언가를 숨겼다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허가 없이 촬영하고, 이미지를 받는 경우에도 결코 폭력을 당한 일이 없었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러한 실험·퍼포먼스는 비밀리에 촬영할 수 있는 착용 가능한 이미지 캡처 기구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낸 채 촬영과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기구까지도 시민이 권력과 폭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유용한 형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자유의지의 개인과 고용된 사원의 충돌

개인이 경찰국가에 대항할 때 맞닥뜨리는 일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반면,

경찰국가에 고용된 사람들은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원 노릇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이지만, 이사회 감독권 아래 있는(것처럼 보이는) 사장, 그 사장의 감독권 아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매니저, 그리고 그 매니저의 감독권 아래 있는(것처럼 복종하는) 사원의 상호작용이 잘 보여 준다.

우리 모두 고문·대학살 같은 제도적인 폭력을 일상에서 쉽게, 정기적으로 접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보통사람들은 중고차 세일즈맨과 흥정하는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데서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개인과 고용된 사원 노릇을 감당하는 두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당신에게 1000달러에 이 차를 팔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매니저랑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와서 “저는 1000달러에 팔고 싶은데 매니저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매니저와 상의한 일이 없더라도, 자신이 상관의 감독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고객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 ‘개인’은 ‘사원’에 비해 더욱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이성적이고 무례한 위협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카지노 직원·경찰·세관원 주위에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다면 그는 이상하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비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적 자유’는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아이탬을 통한 퍼포먼스는 1997년 9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사진이 금지된 장소에서 일주일간 벌어졌다 (<http://wearcam.org/ars/index.html>).

‘증인용 네트워크(Witnessential network)’에서 중요한 요소는 개인이 육체적·강제적으로 권력(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을 주거나 나아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촬영되거나 이미지를 받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발적으로 촬영하거나 받은 이미지는 우연히 혹은 어떤 의도나 계획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그것을 사용하는 의도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더해, 촬영당한 사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격하(self-demotion)’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착용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신이 어떤 안전관리기관의 지배 아래 있거나 혹은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격하는 외부의 매니저 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비디오 캡처 프로세스(video capture process)를 조정하는 시스템의 센서가 바로 그것이다. 착용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박동 수나 땀을 흘리는 것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에만 촬영할 수 있고, 이미지가 포착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착용 가능한 컴퓨터로 촬영하는 사람이 외부의 공격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용자가 그 일로 인해 땀이 나고, 심장박동이 가빠졌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 증인으로서의 네트워크

나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100여 가지가 넘는 착용 가능한 영상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착용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험과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인용 네트워크’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념을 확보하게 되었다.

‘증인용 사이보그(Witnessential Cyborg)’는 우연히 촬영하고 이미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발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증인용 사이보그는 사물을 선별적으로 보지 않고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이보그에 장착하는 장치는 입을 수 있거나 ‘내부’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증인용 사이보그는 모든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항상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사이보그가 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록’ 기능은 한밤중 강도에 의한 급작스런 폭력을 기록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증인용 사이보그는 옷이 강제적으로 벗겨지든, 착용자가 살해되고 그 몸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생방송으로 비디오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용 사이보그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인권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버릴 수 있도록 자아를 격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공헌을 감추거나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증인용 네트워크’가 무언가를 숨긴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되지 않아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기증받을지라도, 이 네트워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정부 혹은 어떤 법인의 하부구조에도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 약력

스티브 만(Steve Mann)은 ‘착용 가능한 컴퓨터(wearable computer)’의 창시자, 세계최초의 사이보그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자신이 만든 착용 가능한 컴퓨터를 입고, 기억을 확장하는 컴퓨터 센서를 달고, 시야를 넓혀주는 ‘아이탭(eyetap)’을 직접 자신의 눈에 쓰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1997년 자신이 시작한 ‘wearable’ 분야로 MIT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1980년대부터 사이보그적 패션디자인을 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뉴미디어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레트로니카(Ars Electronica)와 워커 아트 센터(Walker Art Center)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올해 3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사에서, 공항에서의 검색 강화로 인해 항상 자신이 쓰고 다니는 ‘웨어캠(WearCam)’ 등의 장비를 압수당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캡션 : 스티브 만은 아트센터나비에서 주최하는 ‘확장 : 이동통신 문화와 예술 심포지엄

(Extention : Wireless Art & Culture)'(9.4~6·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 아트센터나비)에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이동통신기술에 관하여 '확장'이라는 주제로 인문사회·기술·예술의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인간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창조적 매체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데릭 드 켈코브(Derrick de Kerckhove) 토론토 맥루한 프로그램 디렉터, 정화열 미국 모라비언대 정치학과 교수, 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심리학자 존 겔란드(John Geirland), 《Digital women and the New Techno culture》의 저자 사디 플랜트(Sadie Plant), 피오나 래비(Fiona Raby) 영국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크리티컬 디자인 유닛 디렉터, 모리스 베나윤(Maurice Benayoun) 파리 1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